

新羅 深妙寺址의 推定

鄭 永 鎬

一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未踏의 地域이 많아서 때때로 새로운 遺蹟과 遺物이 發見調査되고 있다. 佛敎의 諸造形物은 만드시 모두 그의 所屬 寺刹이 있으므로 대개는 文獻이나 記錄에 의한 現地踏查에서 古代 寺刹이나 寺址 등을 確認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記錄에 전혀 없는 寺院址 및 遺蹟遺物이 調査되어 「逸名寺址」라고 紹介되는 때도 적지 않다.

그리고 또 文獻에 의하여 現地를 調査하였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確證할만한 遺蹟이나 근거를 찾지 못하고 다만 「推定」에 그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런 때에는 考證의 정도에 따라 그 遺址로서의 可否를 定하게 되는 것이다. 例컨대 文獻이나 記錄에 있는 寺名을 따라 調査를 進行하던 寺址에서 蒐集된 瓦片이나 碑片에 그 寺名이 보였을 때 그것은 다시 없는 一級資料로서 평가되며 文獻과 遺蹟이 一致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記錄에 따라 現地를 踏查하였으나 磁器나 瓦片의 蒐集으로 그리고 그 寺名을 實證할만한 아무런 資料도 調査할 수 없었다고 하면 여기에는 당연히 「推定」이란 식연치 않은 결론이 따를 것이지만 이 推定이란 결과에도 그 考證內容의 정도에 따라서 肯定的인 要件이 더욱 많은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一九六五年三月과 十二月、二次에 걸쳐 筆者는 江原道 雪岳山으로 陳田寺址을 찾으러 간적이 있다. 그것은 祖堂集 卷第十七 四丈①에 「雪岳陳田寺……」란 記錄이 보이며 聞慶郡 鳳巖寺 智證大師 寂照碑②나 長興郡 寶林寺 普照禪師 彰聖塔碑③ 文中에 新羅 九山禪門中의 하나인 迦智山門

(迦智山 寶林寺)의 開山祖라 일컫는 道義禪師가 오랫동안 이곳 陳田寺에 隱居하였고 한편 高麗國 義興花山 曹溪宗 麟角寺 迦智山下 普覺國尊碑④에 의하면 高麗時代에 이르러서는 당시 一然禪師가 十四歲時에 이곳 雪岳山 陳田寺의 長老 大雄으로부터 剃度貝를 受就하였던만큼 羅·麗代를 통하여 이곳 陳田寺가 禪門으로 이름난 大道場이었던 까닭이다. 兩次的 現地踏查에서 三層石塔(陳田寺址 三層石塔)과 國寶 第一二二號로 指定)과 石造浮屠(陳田寺址 浮屠)寶物 第四三九號로 指定)를 비롯 石造佛座臺、拜禮石 등을 調査할 수 있었고 특히 「陳田」銘의 平瓦片이 蒐集되어서 이곳 襄陽郡 降峴面 屯田里의 寺址가 바로 筆者가 찾으려던 「雪岳山 陳田寺」 遺址임이 確實해졌던 것이다. ⑤

그런데 本稿에서 論하려는 「深妙寺」는 記錄에 의하여 統一新羅時代에 盛利이었음을 짐작케 하는 바 現地踏查結果 磁器와 瓦磚片、 그리고 若干의 石材片을 調査 蒐集하였을 뿐 上記 陳田寺址와 같이 確證할 수 있는 遺物을 찾아내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首題에 深妙寺址의 「推定」이라 하였지만……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비록 推定이란 結果라 하더라도 앞으로의 考證內容에 있어서는 거의 確證과 다름 없는 肯定的인 근거가 많으니 本論에서의 推定은 결코 一般的으로 使用되는 推理的인 뜻과 구별해야 될 것임을 序頭에 말해 둔다.

二

深妙寺가 統一新羅時代의 寺刹이었으며 當時 이름난 大刹로 法燈이 輝煌했었음을 짐작케 하는 記錄은 保寧郡 聖任寺 朗慧和尚 白月葆光塔碑⑥의 碑文中에서 찾을 수 있다.

이 塔碑는 新羅時代 禪門 九山中의 하나인 保寧 聖任寺의 開祖 無染(入寂 訥號를 諱慧라 했음) 大師의 塔(塔名을 白月葆光塔이라 함) 碑로서 孤雲 崔致遠이 撰한 四山碑中의 하나로 특히 有明한데 이것은 眞聖女王四年(八九〇A、D)에 이루어진 것임을 碑文 末尾에 의하여 짐작할 수 있다.

이 碑文 속에 「……贈大傳 獻康大王 親製深妙寺碑錄之備矣……」라 한 것

과 「……上知不可強迺降之檢以尙州深妙寺不遠京請禪那別館辭不獲往居之一日必肯儼若化城……」이라 한 내용에 의하면 당시 深妙寺의 상황을可히 알 수 있는 바인데 特히 無染大師께서 「尙州深妙寺의 禪那別館」에 往居하였다는데서 深妙寺의 所在地가 尙州元地임을 우선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深妙寺의 存在를 알리는 記錄을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1、東國輿地勝覽 卷之十六 黃澗縣 佛宇條에

深妙寺 寺有八景 使君峰 月留峰 山羊壁(即山羊巖) 龍淵洞 冷泉

亭花巖 岳 青鶴窟 法尊岩

2、梵宇攷 忠淸道 黃澗縣 寺刹條에

深妙寺 今廢 寺有八景 使君峯 月留峯 山羊巖 龍淵洞 冷泉亭 花巖 岳 青鶴窟 法尊巖

3、永同郡誌 寺社條에

深妙寺 在院村里 冷泉上 今無 寺有八景 使君峯 月留峯 山羊壁 龍淵洞 冷泉亭 花巖 岳 青鶴窟 法尊巖 景致絶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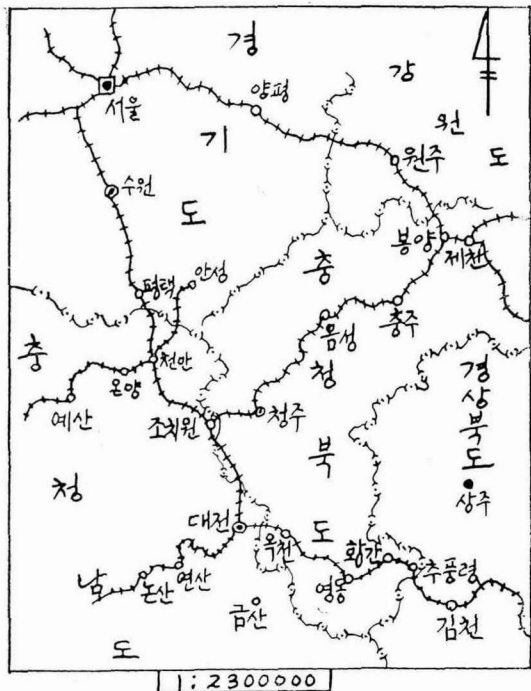


圖 1. 現地行路

이 세 가지 중 앞의 두 가지 記錄에 의하면 深妙寺는 忠淸道 黃澗縣에 위치하였던 寺刹로 현재는 廢寺되었으며 이곳의 八景이 絶景으로 有明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永同郡誌에 의하면 그 地點이 더욱 더 확실해 지는 것이니……院村里的 冷泉上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지고 다만 絶勝의 景致만이 남아 있다고 하여 寺刹의 位置가 院村里임을 確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곳을 지금의 行政區域으로 말하면 忠淸北道 永同郡 黃澗面 院村里 俗稱「서운마」라고 한다. ⑦ 그러나 新羅時代에는 이곳 一帶를 制壓하고 있던 곳이 「尙州」였었으니 「尙州深妙寺」란 碑文은 당연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까지의 모든 記錄을 종합해 보면 黃澗面 院村里 冷泉上에 深妙寺址가 遺存함이 틀림 없을 것이며 다만 한가지 남은 일은 現地踏查에서 諸遺蹟遺物을 收容檢討하여 考證하는 일인 것이다.

三

筆者가 계획한 今年度(一九七二年度)의 古蹟調査對象地는 忠淸北道 永同郡이어서 지난 一月十六일부터 約十日間, 一次現地踏查를 마쳤고 二次踏查는 夏季休暇中 실시할 것이며 이것으로서 永同郡 威의 査는 끝낼 예정이다. ⑧

出發에 앞서 諸記錄에 의하여 作成한 參考資料를 가지고 現地인 黃澗面 院村里 部落을 방문한 것은 一月十八日이었다.

黃澗面 所在地에서 北쪽으로 約四km 되는 마을이 「院村里 서운마」라 하는 곳이다. 멀리 西南쪽 上村面 深谷에서 發源한 溪流가 梅谷面을 지나 廣坪里에서 黃金面 溪流와 合流하여 所在地를 貫流하고 院村里 앞을 구비구비 돌고 있는 바 마을 入口에서는 다시 白華山에서 흘러오는 石川과 合流되어 마을 앞에 이르러는 상당한 水量으로 큰 江물을 이루고 있다.

서운마 洞里에서 이 큰 개울 건너 西쪽으로 마주 바라보이는 絶壁의 봉우리를 月留峯이라 일컫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앞서 세 가지 記錄에 보이듯이 「寺有八景」中的 하나인 月留峯임을 곧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밖에 나머지 七景도 이 院村里 주변과 月留峯 左右邊에 있음을 現里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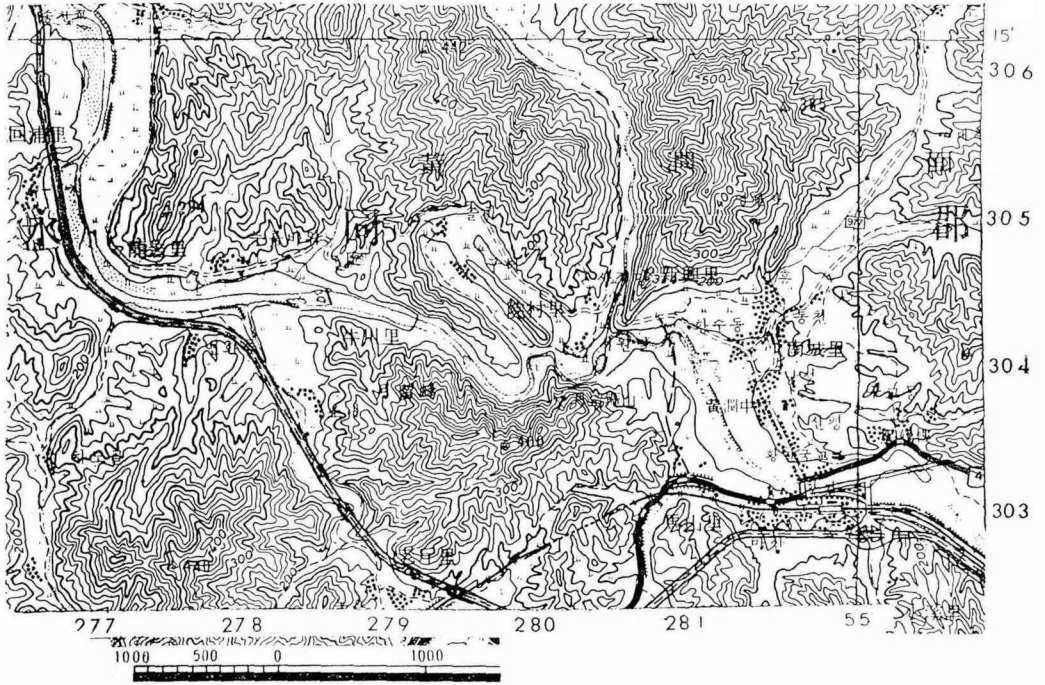


圖 2. 深妙寺址로 推定되는 院村里 略圖

인 曹命得(四八歲)氏가 설명해 주는데 더우기 洞里 西北편에 위치한 八作지붕 瓦屋의 齋室기둥마다 前記 八景을 소개하는 현관을 걸어 놓은 것을 보더라도 이곳이 바로 과거 深妙寺의 八景元地임이 확실하다 하겠다.

이곳 「院村里 서운마」의 地勢를 보면 東쪽에서 멀리 尙州 白華山의 支脈이 흘러 한줄기가 北쪽에 까지 둘러 있고 西쪽은 여러 溪流가 合流하는 錦江上流전면에 月留峯 諸峰이 連해 있으며 南쪽은 黃澗의 넓은 들이 있어서 視野가 멀리 秋風嶺 方向에까지 展開된다. 그러므로 이 洞里는 僻 아늑한 인상을 주는 位置라 하겠는데 특히 이 마을에는 뒷쪽 (北쪽이 된)에 낮은 등산이 있어서 더욱 더 그러한 느낌을 주는 바라 하겠다.

筆者가 現地에서 직접마다 다니면서 傳說을 듣고 또 地表에 노출된 遺物을 살펴 보며 그리고 部落의 주변에서 蒐集調査한 資料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里長 曹命得氏 말에 의하면……이 마을이나 주변에서 밭을 갈거나 집 마당을 파거나 하면 많은 기왓장과 長大石이 나오고 때로는 礎石들도 出土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오래전부터 전하기를 이곳이 무슨 절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오랜 옛날 신라시대의 절터라고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한편 洞民 曹潭植(四九歲)氏宅 뒷뜰에서는 「약간만 땅을 파도 큰 돌로 평평하게 깔아 놓인 것이 보인다」고 하는데 이것은 곧 長大石이 連結된 것으로 생각된다.

(2) 長大石과 無紋磚…… 鄒雲相氏宅 대문턱에 길이 一 m 넓이 二七 cm 의 長大石이 놓여 있는데 一角에 角形 一段의 模刻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構造物의 階임돌로 使用되었던 石材로 생각된다. 曹春植氏宅에도 같은 形式의 模刻이 있는 長大石 二石이 마루 밑의 地담돌로 使用되고 있는데 各各 長이 一八〇 cm, 寬이 二四 cm, 厚이 一一〇 cm, 높이 二二三 cm 의 크기이며 一段의 角形 模刻은 五 cm × 四 cm 이다. 無紋磚은 모두 長方形으로 크기가 여러 종류인데 曹氏宅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다.

(3) 石槽片…… 마을 西쪽편 한적한 곳에 雜草와 자갈에 묻혀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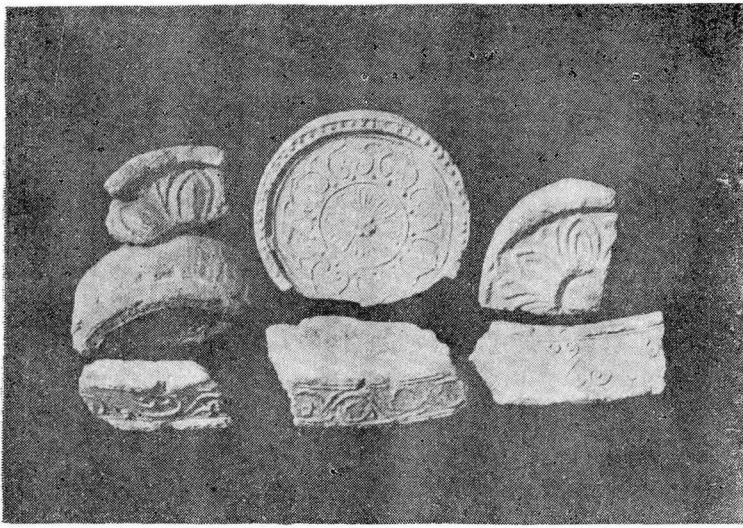


圖 3. 深妙寺址에서 蒐集한 瓦片數例

의 石碑가 있는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 尤庵 宋時烈先生이 이곳에 있으면서 月留峰頂의 藥水를 마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碑閣內에서 注目되는 것은 碑石을 새운 그 碑座가 곧 石塔의 屋身石이란點이다. 屋身石上面은 扁平함으로 그 中央에 長方孔을 파서 碑身을 세우기에 는 안성 마춤으로 이 塔材가 쓰여진 것인데 현상대로서는 屋身幅 八四 cm 各面隅柱幅 一九 cm 만을 확인 할

(4) 石塔材... 石槽片이 殘存하는 곳에서 南쪽으로 약 五〇m 되는 江岸에 맞배지붕 單間瓦屋의 碑閣이 있다. 이 안에 「尤庵宋先生遺墟 碑」라 題한 一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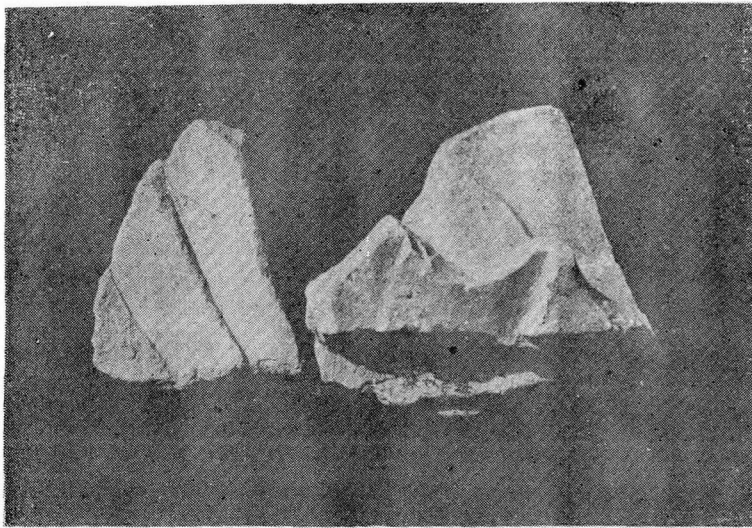


圖 4. 深妙寺址에서 蒐集한 鸚尾片

(6) 鸚尾片(圖 4 參照)... 洞里周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일은 碑石의 豎立年代가 「崇禎紀元後 百三十六年 三巳卯九月 日立」로 銘記되어 있으니 이때는 벌써 廢塔되어 그 部材가 무참히 破壞되고 있었던 사실이다. (5) 紋樣瓦(圖 3 參照)... 숫막새와 암막새가 多數 蒐集되었는데 모두 新羅代와 高麗初期의 것으로 보인다. 羅代의 것으로 생각되는 숫막새는 周緣에 連珠紋帶가 있고 蓮瓣의 原形이 變形되어 線刻으로 연봉 八瓣을 돌린 瓣內에 귀꽃紋의 장식이 있으며 子房은 中心에 蓮子를 두고 주위에 複葉 八瓣의 蓮華紋을 돌렸 는 바 이러한形式의 蓮華紋瓦當은 慶州等地에서 흔히 出土되고 있으며 ⑨ 그年代는 대개 新羅下代인 九世紀로 추측할 수 있겠다. ⑩ 高麗初期의 造成으로 보이는 숫막새는 重瓣의 形式으로 瓦質 자체가 多少 거칠어진 느낌을 주고 있다. 암막새는 모두 唐草紋으로 典型的인 新羅樣式을 보이고 있다.

에 蓮子를 두고 주위에 複葉 八瓣의 蓮華紋을 돌렸 는 바 이러한形式의 蓮華紋瓦當은 慶州等地에서 흔히 出土되고 있으며 ⑨ 그年代는 대개 新羅下代인 九世紀로 추측할 수 있겠다. ⑩ 高麗初期의 造成으로 보이는 숫막새는 重瓣의 形式으로 瓦質 자체가 多少 거칠어진 느낌을 주고 있다. 암막새는 모두 唐草紋으로 典型的인 新羅樣式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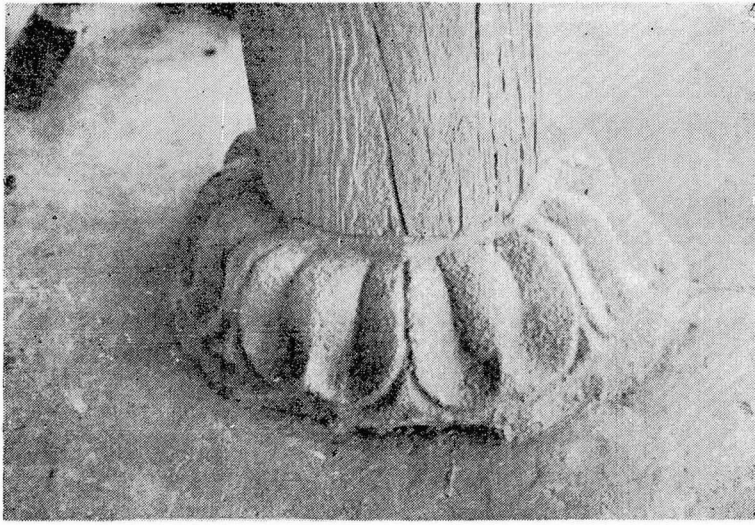


圖 5. 黃澗鄉校의 柱礎로 사용된 蓮華臺石 其一

에서 南쪽으로 약 4km 되는 黃澗面 所在地에 自古로 有名な 駕鶴樓가 있고 이樓閣 바로 뒷쪽(北方)에 黃澗鄉校가 있다. 이곳은 南城里 舊校洞이 되는데 鄉校뒷쪽에는 아직도 土城址가 남아 있어서 옛부터 이 고장의 中心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鄉校에는 현재 四座의 蓮華臺石이 柱礎石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 一石의 石塔 屋蓋石이 露臺石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들 佛敎的인 諸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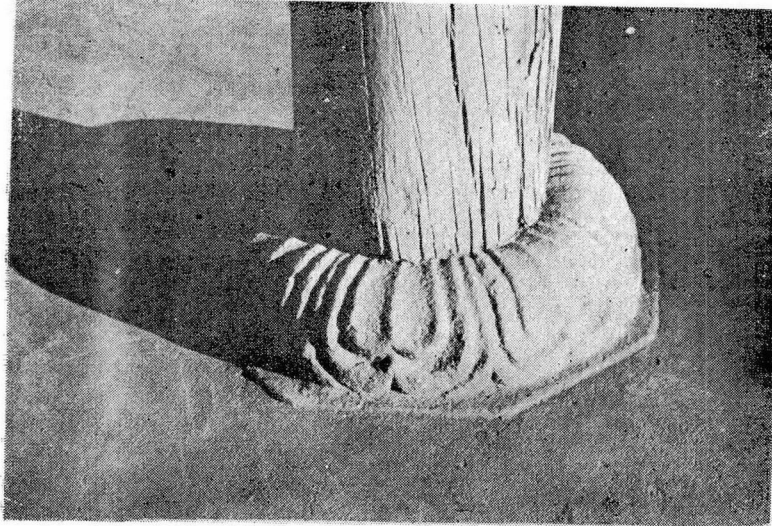


圖 6. 黃澗鄉校의 柱礎로 사용된 蓮華臺石 其二

蓮華臺石은 多 두 花崗岩材로 八角인데 蓮瓣은 單葉과 重瓣의 二種이 있으며 年代는 羅代로부터 麗初에 걸치는 것으로 추측된다. 石塔의 屋蓋石은 倒置한 채 시멘트로 固着시켰으므로 轉角以上の 落水面部의 형태를 알 수 없다. 옥개받침은 四段이 정연하고 下面의 落水홈이 얇고 좁게 陰刻되어 있다. 以上 現地에서 蒐集, 調査한 諸遺蹟과 遺物을 檢討해 보았다. 이들은 모두 佛敎的

(7) 黃澗鄉校內의 蓮華臺石(圖 5·6 參照)과 石塔材: : 이곳 院村里 邊의 耕作地 石築들에서 發見한 것인데 二點이 各各 크기와 그 瓦質이 같지 않다. 二條의 羽形이 表示된 鷓尾片은 多少 尺寸은 不規則인 데 비해 또 하나의 鷓尾片은 아주 부드러운 質이며 특히 表面에 朱漆이 보이며 注意를 끌고 있다. 형태는 양쪽 表面에 羽形이 表示된 것으로 보아 下端部에 屬하는 部分片으로 생각되며 年代도 羅代로 충분히 유력 수 있다.

品의 出處가 과연 어디인가 하고 우선 의아해진다. 그러나 이곳 院村里 遺蹟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들 五點의 部材는 모두 院村里에서 옮겨온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가까운 곳으로 寺址라고는 院村里밖에 없으며 둘째로는 尤庵先生의 遺墟碑 碑座에도 石塔의 屋身石을 사용하고 있으니 당시 모든 石造物이 破壞되어 四方으로 流出되었을 것이니 鄉校의 柱礎로 쓰여진 일련은 여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인 造形物이므로 이곳이 寺址임에는 틀림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造成年代를 新羅代로부터 高麗初期에 걸치는 것으로 추측하였으니 羅代에 經營된 寺院이었음이 또한 사실인 것이다. 한편 上述한 바와 같이 深妙寺가 羅代의 寺院이었음을 알려주는 기록으로 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文에 의하면 「獻康大王親製深妙寺碑錄元……」라 하였으니 寺院 創建年代의 下限을 獻康大王代(八七五?八八五A.D.)로 잡아도 九世紀後半인 것이며 이 年代는 現在 諸遺物의 造成年代와도 큰 差異가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東國輿地勝覽이나 梵宇攷、永同郡誌等 諸記錄에 深妙寺에 關하여 言及하되 月留峰等 絶勝八景이 있다고 하였으며 特別히 그 地點을 院村里라 明記하였으니 이러한 모든 遺蹟과 記錄을 綜合해 볼 때 현재의 「院村里 서운마」 마을 一帶를 「新羅時代에 創建된 深妙寺址」로 推定할 수 있겠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아쉬운 일은 深寺銘瓦片이나 關係金石文片이라도 蒐集되었으면……하는 마음이나 앞으로 再調査의 기회가 있으면 그때에 다시 기대를 걸어 보기로 하고 여기서서는 우선 羅代의 寺址 一處를 새롭게 찾았다는 일로 그치겠는데 現地 狀態로 보아 試掘이라도 해보면 많은 새 資料의 發見調査는 가능하리라 믿는 바이다.

그리고 現地調査者로서 一言할 것은 이곳의 地勢로 보아 寺域은 뒷동산을 北側에 둔 南向寺刹로 상당한 規模였을 것이며 寺院의 存續은 朝鮮時代瓦片等이 全無한 것으로 보아 壬亂前까지였던 것 같다.

끝으로 本稿는 지난 五月二十七日 第十五回 全國歷史學大會에서 發表한 內容을 整理한 것임을 附言한다.

註

- ① 曉城 趙明基博士 華申記念佛敎史學論叢附錄所收(一九六五年五月刊)이 祖堂集二十卷、全帙三八五張의 板本은 현재 陝川 海印寺 藏經閣안에 保管되어 있다.
- ② 이 碑石은 현재 慶北 聞慶郡 加恩面 院北里 鳳巖寺境內에 寶物 第一三八號로 指定保護되고 있다. 碑文全文은 朝鮮金石總覽上卷 八九頁 參照.
- ③ 이 碑石은 현재 全南 長興郡 有治面 鳳德里 寶林寺境內에 寶物 第一五八號

로 指定保護되고 있다. 碑文全文은 朝鮮金石總覽上卷 六二頁 參照.

④ 이 碑石은 현재 慶北 軍威郡 古老面 華水洞 麟角寺 境內에 遺存하나 大破되어 缺落된 部分이 많다. 그러나 江原道 平昌郡 珍富面 五台山 月精寺藏寫本이 紹介되어 剝落된 部分을 補充하고 있다. 碑文은 朝鮮金石總覽上卷 四七〇頁、朝鮮佛敎通史 下編 三五九頁 參照.

⑤ 拙稿「襄陽 陳田寺址 遺蹟 調査」歷史敎育 第十一・十二合輯 金聲近博士 選曆午念論叢(歷史敎育研究會刊)一九六九年 四月.

⑥ 이 碑石은 현재 忠南 保寧郡 峭山面 聖住里 聖住寺址에 遺存하며 國寶 第八號로 指定保護되고 있다. 碑文全文은 朝鮮金石總覽上卷 七二頁 參照.

⑦ 이것은 現地調査 結果에서 밝혀진 일인데 앞으로 詳述하게으나 우선 論攷의 展開上 미리 말해 둔다.

⑧ 筆者가 말고 있는 檀國大學校 博物館에서는 一九六七年에 수립한 古蹟調査計劃에 따라 一年에 一個郡式을 선정하여 年間 二次에 걸친 地表調査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古蹟調査報告書」로 發表하고 있다. 今年度(一九七二年)는 그의 第六次年度로서 昨年の 沃川郡에 이어 永同郡內 各地域의 古蹟調査를 進行하고 있다.

⑨ 「新羅古瓦의 研究」日本 京都帝國大學刊(京都帝國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報告 第十三册) 一九三四年

⑩ 金和英「統一新羅時代 蓮華紋研究」梨大史苑 第七輯(梨花女子大學校文理大學梨大史學會刊) 一九六八年